

즉시 배포용: 2019 년 3 월 6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혐오 범죄 수사 및 근절을 위해 주 경찰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

160 명 이상의 사법 인원이 뉴욕 혐오 범죄 수사 세미나를 위해 올버니에 집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립경찰이 올버니의 주립경찰학교(State Police Academy)에서 뉴욕주 혐오 범죄 수사 세미나(New York State Hate Crimes Investigation School)의 훈련과정을 끝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검사를 비롯해, 뉴욕주와 카운티, 지역 수준으로부터 160 명이 넘는 사법 인원이 이런 종류의 범죄를 조사한 경험이 있는 입법부 대표 및 혐오 범죄 관련 법 전문가, 그리고 반 유대주의 대항 동맹(Anti-Defamation League)의 트레이닝 스태프로부터 교육을 받기 위해 3 월 5 일부터 6 일까지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유형의 행동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과 함께, 뉴욕주의 혐오 범죄를 파악하고 수사하는 법, 증거 절차, 사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과정 참가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혐오 범죄의 증가와 함께, 주 및 지역 사법 인력들이 최신 트레이닝과 정보를 받아서 이 끔찍한 범죄의 수사과 기소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뉴욕주에서 혐오가 있을 장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레이닝은 혐오 범죄가 아직 기승을 부리는 사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뉴욕주 경찰청(State Police) Keith M. Corlett 경찰서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의 안전은 우리의 최상위 과제이며, 그리고 우리는 지역사회 내에서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사람에게도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 세미나로 인해, 사법부 및 우리 지역사회 파트너에게 포괄적이고 중요한 트레이닝을 실시하여, 혐오 범죄 사건을 수사 및 해결하는 일에 대해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 트레이닝이 수사원들에게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싸우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원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Cuomo 주지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편견 및 차별 방지 조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16 년 주지사는 뉴욕 최초의 혐오 범죄 전담반(Hate

Crime Task Force)를 만든 후, 곧 혐오 범죄 상담전화(Hate Crimes Text Line)를 신설하여 뉴욕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편견이나 차별을 목격 혹은 경험하신 분은 사진이나 비디오를 포함한 자세한 사건의 경과와 함께 81336 번으로 “HATE”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십시오.

이 텍스트 라인은 주립 인권국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1-888-392-3644)이 운영하는 편견 및 차별 신고 무료 직통전화에 추가됩니다. 2016년 11월 개시 이후, 직통전화를 통해 19,000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으며 잠재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주립경찰에 180건을 의뢰했습니다. 긴급 상황의 경우 혹은 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항상 911에 신고하십시오. 증오 범죄자 체포 및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모든 제보에는 우선 5,000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017년 주지사는 Bill de Blasio 뉴욕시 시장과 협력하여 20,000달러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신념, 신앙 혹은 전도 행위로 인해 증오 범죄나 공격 위험에 처한 뉴욕의 학교 및 탁아소의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5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보안 장비와 교육 자료에 자금을 지원하며 국토보안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에서 관리합니다.

뉴욕주 피해자 서비스국(Office of Victim Services, OVS)은 혐오 범죄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최근 주법의 개정으로 기관이 범죄로 인해 신체 상해를 입지 않은 개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으며, 기관이 제공하는 안전망이 넓어졌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오로지 신체 상해를 입은 혐오 범죄 피해자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혐오 범죄와 관련된 공격을 받아 골절을 입은 사람은 언제나 보상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 범죄로 인해 가정에 큰 피해를 입어 정신적 상해를 입은 사람은 카운슬링에 대한 지원이나 범죄 현장 청소 지원을 요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상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제 변했습니다.

피해자 서비스국(OVS)은 또한 주 전역에 걸쳐 220개가 넘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여, 혐오 범죄를 비롯한 범죄 피해자에게 위기 개입, 카운슬링 등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국은 또한 주 전역의 뉴욕주 경찰대에 배치된 범죄 피해자 변호사에게도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타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는 변호사 및 스태프도 범죄 피해자가 피해자 서비스국(Office of Victim Services)에 보상과 기타 지원을 신청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국은 다른 개인적 구제 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OVS 지원을 원하시는 피해자분들은 온라인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https://ovs.ny.gov/locate-program>.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ovs.ny.gov.

뉴욕주 법률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혈통, 성별, 종교, 종교적 관습, 연령,

장애 또는 성적 성향에 관한 인식이나 믿음 때문에 희생자를 대상으로 해서 명시된 일련의 범죄행위 중 하나를 범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해당 유형의 인식이나 믿음의 결과로서 범해지는 경우, 해당 범죄자는 증오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증오 범죄는 개인, 개인들의 집단, 또는 공공 재산이나 민간 재산을 상대로 범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 법률에 따라, 인종, 출신 국가, 종교, 민족, 그리고 그 밖의 보호받는 많은 분류 사유에 기초해서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뉴욕주는 모든 시민들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법 (Human Rights Law)을 제정한 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은 고용, 주택, 공공시설, 신용 및 기타 영역에서 연령, 인종,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지향성, 혼인 여부, 장애, 군필 여부 및 기타 특정 분류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인권법과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의 활동에 관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dhr.ny.gov)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